

[성명]

## 상식적 · 합리적 인력 충원을 촉구한다!

대구대학교 구성원은 대학이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헌신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학의 위기 극복과 공생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명제에 동의하여 대학본부의 자구노력과 개혁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노조를 비롯한 직원사회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통의 분담을 감내한 현실은 두루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근년 급격한 직원인력 감소와 부족으로 인한 업무강도의 과중화는 ‘공동체를 위한 고통 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더하여 20여 년간의 임금동결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까지 부가된 고통은 ‘일방적 고통 전담’이다.

대학본부는 즉시 직원 인력 충원을 통해 학사행정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노동력과 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정년(명예) 및 조기 퇴직, 자의로 인한 퇴직 및 이직자가 최대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직제개편을 뒤로하고 진행된 각종 겸임(직), 수시 전보, 급작스런 TF 운영 등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임을 대학본부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의 편중, 가중, 하중이 직원사회에 노동의 과중으로 이미 다다랐음을 밝혀 둔다. 노조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외면할 의도도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동참해 왔음을, 그리고 직원의 증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직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최소한의 직원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시 공동체의 공생발전을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직원의 충원을 촉구한다.

영광학원 법인은 대구대학교 직원 인력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구성원이 최근에 닦친 각종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하고 있을 때, 특히 구성원이 의지와 지혜를 모아 합심하여 노력분투할 때 법인으로서 권한을 발휘하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본 노조는 영광학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직원사회의 역사적 노력에 대한 평가를 특별히 강조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정상화 이후 법인의 안착화를 위해 투쟁해 왔음을 법인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예산운용계획에서 재정의 긴축성만을 강조하여 규제하는 법인의 조치는 수수방관으로 보일 뿐이다. 대구대학교의 직원 충원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2023. 4. 25.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